

'문학의 계절' 언택트 방식으로 독자 만나다

10월 문화와 독서의 계절을 맞아 작가와 독자의 만남 등 다채로운 방식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문학행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크게 두 가지다. 5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과 '2020 도깨비 책방'이 그것.

먼저 문학주간(9월 26일-11월 30일)에는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오디오 픽션' 등 문화와 관련한 독자와 문인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등이 공동주관하며 '문학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이 행사의 모티브는 140자로 된 한 편의 시를 만난다는 데 있다. 남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시를 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희망지는 시의 문장을 리트윗하고 마음(하트)을 누르면 된다(twitter.com/gubg140). 공개투표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2일 발표한다.

아울러 '시 읽는 TV'(7일-28일)에는 박관서·김예경 시인 등이 참여해 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노래로 부르는 현대시'(10일)에는 김기우·박형준·이병률·변지연 시인이 참여한다.

시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 12일 '가을, 우리 함께 떠나시조'에는 염창권·최향숙·이승화·오성인 시조시인을 비롯해 지역 출신 문인들이 다수 참여한다.

17일(오후 2시-6시)에 열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에는 주민현·변미나·조시현 작가 등이 작품을 낭독할 예정이다.

신동엽 시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우리가 몰랐던 신동엽'(21일)에는 김응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참여해 신동엽의 삶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성 서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24일에는 '다채로운 여성 서사,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김혜나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트랙은 재구성된 덱(Deck)으로부터'(23일), '지구가 말해도 우린 명랑할 거예요'(24일), '시시詩詩하게 이별하기'(24일), '일상으로 스며드는 린치, 소설과 미디어아트로 만나다'(24일), '뽕, 목소리 시극 트위스터'(26일), '나네 언제까지 문화할래 1980-



● 문학주간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등 다채 지역 출신 문인들 참여 행사도 열려

2080'(30일), '한국문학 퀴즈쇼-가나다 마켓'(31일)이 펼쳐진다.

모든문학주간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학주간 블로그(blog.naver.com/arkomunhak)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도깨비 책방'은 책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책을 교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올해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형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에 한해 진행된다. 도깨비책방은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 모두 두 차례(28일



● 도깨비 책방

지역서점서 도서구입 영수증으로 책 교환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 두차례 운영

~11월 3일, 11월 25일-12월 1일) 운영된다.

지역서점에서 도서 5000원 이상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책을 교환할 수 있으며 대형·온라인·중고서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은 제외된다. 희망지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서점ON, www.booktown.or.kr)에 가입 후 구입 영수증을 인증하면 무료로 책을 교환해 받을 수 있다.

도깨비 책방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집필된 창작도서 중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신청자에게 한 권씩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준비된 도서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어른 도깨비', '청소년 도깨비', '어린이 도깨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점온(www.booktown.or.kr)의 '이용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유·사랑·삶... 감성과 사유가 담긴 풍경들

천세진 시인 '풍경도둑'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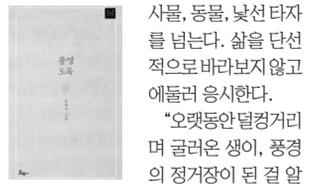
"수백, 수천의 풍경이 나를 낳았다. 풍경이 낳았으므로, 내내 풍경에 갇혀 있었고, 풍경이 품었던 고질(痼疾)을 유전자로 받았다. 지혜를 엿보는 것으로는 지병(持病)만한 것이 없어서 지혜를 얻게 되었으나 병인(病人)의 지혜였다."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천세진 시인이 두 번째 시집 '풍경도둑'(모야)을 펴냈다.

삶의 다양한 풍경에서 깊어 올린 52편의 작품에는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심상과 사유가 담겨 있다. '풍경'이라는 시어가 암시하듯, 시인의 감성과 시심이 닿는 모습들은 잔잔하면서도 한편으로 날카롭다.

이소라 시인이 해설에서 밝혔듯이 천세진의 시는 "자유, 사랑, 삶... 그 모든, 혹은 아직 이름 없는 풍경 속으로 걸어가려는 사람의 발자국"처럼 삶의 현상을 다각도로 접근한다. 삶의 현장과 풍경은 다름 아닌 이야기다.

이 시집의 장점은 삶을 바라보는 다채로움과 그 안에 깃든 서정성이다. 사물과의 일체감을 추구하기도 하고 타자와의 소통을 희원한다. 그것의 대상은 자연과



사물, 동물, 낯선 타자를 넘는다. 삶을 단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뻐 응시한다.

"오랫동안 달경거리며 굴러온 생이, 풍경의 정거장이 된 걸 알았다.(중략)// 풍경의 시간표를 따로 걸어두지 않아도 언제 어느 때 꽃들이, 새들이, 향기들이 정착하는지를 모두 알았다.// 한때는 이름의 정거장이었다. 잃어낸 이름들이 머릿속에 머무르곤 했는데, 한 번 머문 이름들은 잊지를 않아서 다들 놀라곤 했다..."

위의 시 '풍경의 정거장'은 한때는 이름의 정거장이었지만 지금은 풍경만 왔다 떠나는 이미지들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이름으로 머물렀다 풍경으로 떠나는 것은, 어쩌면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지 모른다. 시인이 바라본 풍경이 오래도록 여운을 주는 이유다.

한편 천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와 한국방송대 대학원 문예창작론전트학과를 졸업했으며 시집 '순간의 젤리', 문화비평가 '어제를 표절했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관서 만나는 영국 뮤지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오늘부터 CGV 광주터미널점

영국 가족뮤지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CGV는 2017년 6월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서 이뤄진 공연실황을 7일부터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상영한다고 밝혔다.

케네스 그레이엄이 시력이 약한 아들을 위해 쓴 동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의 섬세하고도 생생한 풍경 묘사, 소리와 동작에 관한 다양한 표현,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작품은 두더지 모음이 집을 나와 여러 모험을 겪고, 물쥐 래트, 두꺼비 토드 등 여러 친구를



사귀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관람료 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오늘 열려

'미디어아트와 AI' 주제 등 발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 광주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7일 열린다.

이번 정책포럼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이 공동주관한다.

특히 유네스코 본부 데니스 벡스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창의도시와 해외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계자, 미디어 아티스트, 공학자 등이 참여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데니스 벡스 창의도시와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김종원 원장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1부에서는 '미디어아트와 AI'라는 주제로 어영정(연세대 응용정보학과 교수),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비드 로크비(뉴미디어 아티스트) 등의 주제 발제와 장우석((주)달루센 대표이사)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는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정엽(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장민한(조선대 교수), 강신겸(전남대 문화전통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하고 신춘성(전남대 교수)박상화(미디어아티스트), 박진현(광주일보 편집국 제작국장)이 토론자



로 참여한다. 이어 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이와함께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 338에서는 이번 포럼과 연계해 미디어아티스트 노진아 작가의 '인공공감 : Artificial Empathy' 전시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2021년 공모사업' 설명회 8일 온라인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2021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운영방향과 세부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편되는 사업방향', '영유아 돌봄비 편성', '창작지원 규모 및 영역 확장', '지원심의 절차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강화' 등이다. 또한 정시공모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인력육성, 신나는예술여행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설명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별도공모 추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자료 집은 8일부터 예술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술위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평화의자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차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톱소파, 업소용제작 친철이 리폼전문 각종소파 친철이수리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골)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공택 ☎ 010-4755-9294</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 방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매매설계, 상속, 증여등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행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부위 ☎ 062)233-5155, 010-3615-5155</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 배달가능 직접전화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보광세탁소</h3> <p>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응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철·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미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잡·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명품웃수선전문점</h3>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철 신용 부위 ☎ 010-2474-1457</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대연건설</h3> <p>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머리해요(미용실)</h3> <p>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앞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너50,000원 셋팅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약초당건강원</h3>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곡·홍삼·생약초증·봉어증·장어증 땀발증·취증·포도증 각종증 법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새서림떡방앗간</h3>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장, 떡추운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h3>광호익스프레스</h3> <p>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삿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